

◆ 국제 비교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조망 및 시사점

조혜원 선임연구원

1. 머리말

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, 주요 선진국의 배상책임 보험과의 비교,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을 조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- 배상책임보험이란 “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, 임차하거나 보호,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물 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의 피용인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”임.
 - 동 보험은 산업의 발전으로 각종 사고발생률이 빈번해짐에 따라, 개인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대응하게 하는 대책이며,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배상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.
-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위수단이며 피해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 보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손해보험 산업, 특히 일반손해보험이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-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위치를 살펴보고,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고찰해보고자 함.
 - 사용 통계는 OECD 보험통계¹⁾를 사용하였으며, 단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 시점에 따른 통계 부재로 국내에서 집적한 배상책임보험 통계²⁾를 사용함.
 - 비교 대상 국가들로는 세계 10대 손해보험 국가 중에서 관련 통계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호주, 캐나다,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함.

1) OECD, *OECD Insurance Statistics*, 각 연도.
 2) 보험개발원, 『손해보험통계연보』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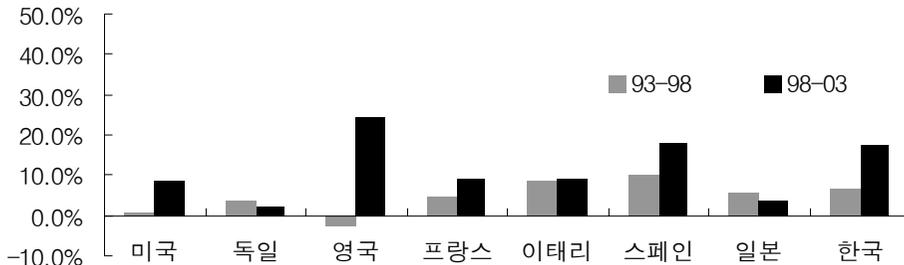
2. 배상책임보험의 국제 비교

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이 경상GDP 성장보다 빠르게 나타나 배상책임보험 침투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나,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규모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.

①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

- 전 세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,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1990년대 후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.
-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5년간 두드러졌으며,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
- 1993~1998년 기간과 1998~2003년 기간 수입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한 결과,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후자 기간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IMF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10%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해 주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.
- 보험료 성장과 더불어 배상책임보험 발생손해액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, 동 보험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<그림 1> 배상책임보험 연평균 성장률 비교



자료 : OECD, OECD Insurance Statistics, 각 연도.

<표 1>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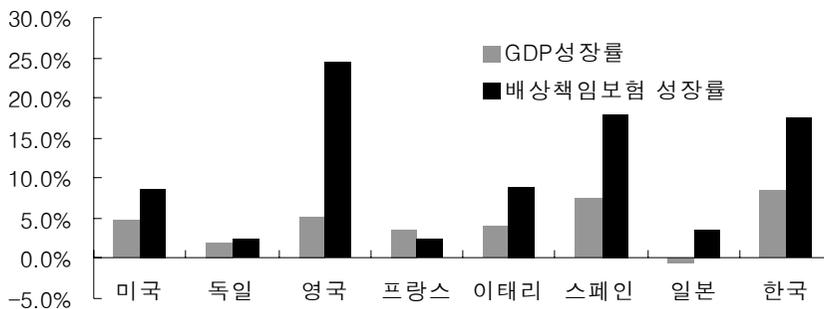
구분	미국	캐나다	영국	독일	프랑스	이탈리아	일본
기간	1955-2003	1975-2002	1983-2002	1971-2002	1971-2002	1970-2002	1970-2002
배상책임보험 손해	10.6%	11.3%	8.8%	7.4%	9.4%	15.9%	13.8%

자료 : Swiss Re, "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-insurance a moving target", *Sigma* No/2004, 2004.

② 배상책임보험 침투도

-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이 경상 GDP 성장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1998~2003년간 평균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성장률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.
-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 GDP 성장률은 연평균 8.4%, 배상책임보험 성장률은 연평균 17.5%임.

<그림 2> 국가별 경상GDP 성장률 및 배상책임보험 성장률(1998~200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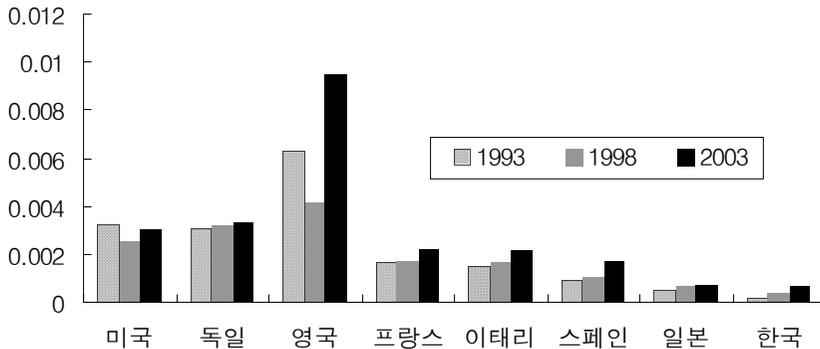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, *OECD Insurance Statistics*, 각 연도.

- 배상책임보험료 성장이 GDP 성장을 상회함에 따라, 배상책임보험이 전체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(배상책임보험 침투도)도 미국, 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은 1998~2003년 평균 17.5%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수준은 2003년 0.0006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.

<그림 3> 국가별 GDP 대비 배상책임보험 비중



자료 : OECD, *OECD Insurance Statistics*, 각 연도.

3.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배상책임보험 침투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, 1인당 GDP가 높을수록,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이 높을수록 배상책임보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.

- Swiss Re에 따르면, 1960~2002년간 미국 일반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, 의료비인상(medical inflation) 및 총의료비지출액(total health expenditures)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³⁾.

□ 이하에서는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와 1인당 GDP 및 GDP 대비 의료비지출 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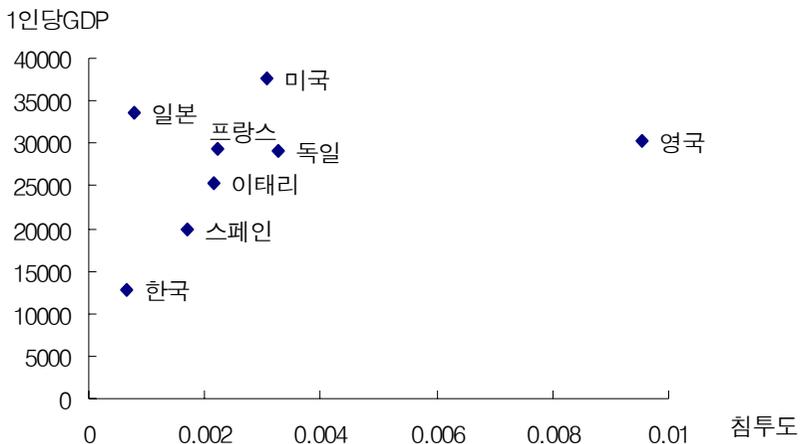
- 3) 미국 배상책임 손해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의료비지출액 성장률이 상관계수 0.24를 나타내었으며, 거시경제적 변수들은 배상책임보험 지급보험금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 자료 : Swiss Re, "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es-insurance a moving target", *Sigma* No6/2004, 2004.

모와 비교 분석함으로써,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시장 특징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국제적 트렌드 등을 고찰하고자 함.

①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

-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,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1인당 GDP가 성장할수록 GDP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.
- 최근 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1인당 GDP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 보험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국민소득 규모가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.
 - 영국의 경우 기업성 보험료 인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급성장하여 가장 높은 침투도를 나타내었고, 일본은 최근들어 동 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.2%로 낮은 수준임.
- 따라서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볼 때,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음.

<그림 4> 국가별 1인당 GDP 및 배상책임보험 침투도



자료 : OECD, OECD Insurance Statistics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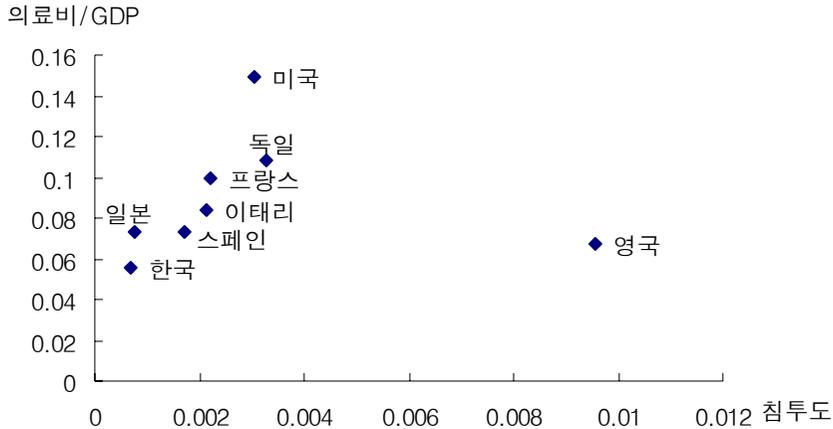
-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, 높은 경제성장률과 배상책임보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.

②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과 배상책임보험 침투도

-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과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와의 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, GDP에서 의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배상책임보험 침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인만큼, 의료비 지출액이 동 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.
- 미국과 같이 의료 관련 배상책임보험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동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, 앞서 설명한 Swiss Re의 분석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.
 - 미국의 경우,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의 신체상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외에도 의료과오배상책임보험(Medical malpractice)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액과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음.
 - 2003년 미국의 의료과오배상책임보험은 전체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13.4%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1998~2003년간 평균 10.9%의 성장률을 보임4).
-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에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,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의료비지출액이 배상책임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.

4) Swiss Re, "The economics of liability losses-insurance a moving target", *Sigma* No6/2004, 2004., p8.

<그림 5> 국가별 의료비지출액/GDP 및 배상책임보험 침투도



자료 : OECD, OECD Insurance Statistics, 각 연도.

3.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

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위치나 최근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성장단계에 있으며, 1인당 GDP 및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임.

□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FY2004 8.4%의 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최근 일반손해보험 산업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
- 손해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FY2001 1.9%에서 FY2004 2.3%로 소폭 증가하였으며, 특종보험의 약 25%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.

5) 국내에서 집적한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로 앞서 국제 비교에서 사용한 OECD 성장률과는 상이할 수 있음.
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연도.

<표 2> 국내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(FY2001~FY2004)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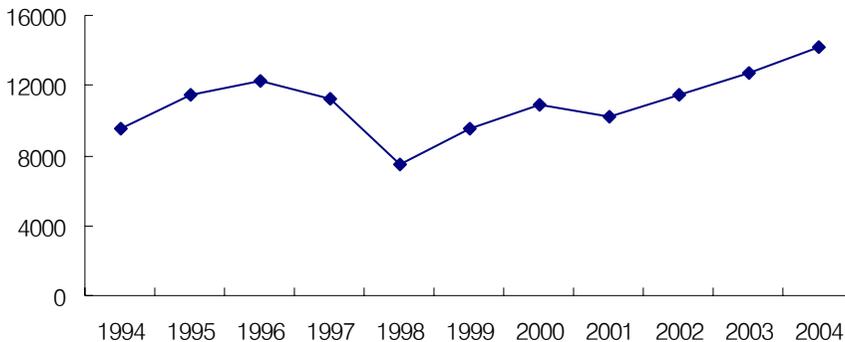
구분	FY2001	FY2002	FY2003	FY2004
배상책임보험(A)	3,602	4,468	4,835	5,243
특종보험(B)	14,430	17,484	18,741	20,369
손해보험 전체(C)	186,887	205,944	213,743	232,173
A/B	25.0%	25.6%	25.8%	25.7%
A/C	1.9%	2.2%	2.3%	2.3%
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연도.

-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위치나 최근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며, 경제성장이나 의료비지출액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임.
- 1인당 GDP와 배상책임보험 침투도의 국제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나, 국민소득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시장 추세와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성장 지속에 따라 동 시장의 성장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평가됨.
- 특히,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는 IMF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GDP에서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6> 국내 1인당 GDP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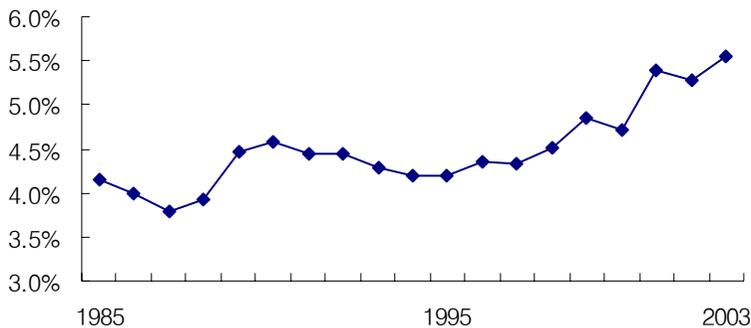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달러)



자료 : 한국은행

- 국내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비율은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보험침투도와의 국제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은 1995년 4.2%에서 2003년 5.5%로 꾸준히 증가함.

<그림 7> GDP 대비 의료비지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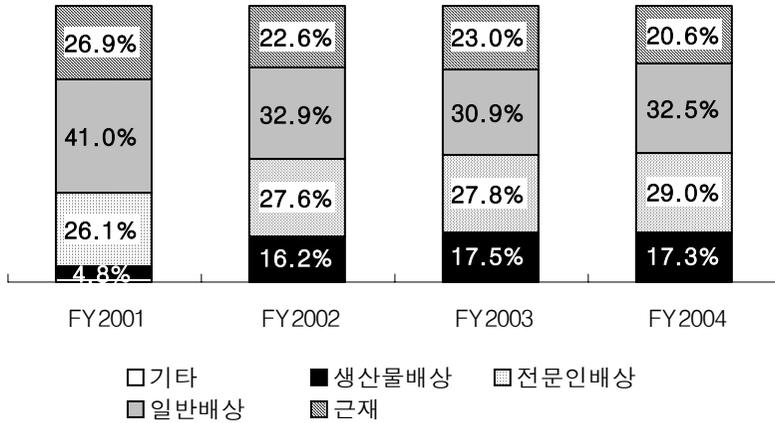
자료 : OECD, 『OECD Health Data 2005』, 2005.6.

- 배상책임보험에서 “대인 배상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고⁶⁾, 최근 신체 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, 향후 의료비지출액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.
- 보험금 지급 측면 면에서 “대인(신체상해)”이 “대물(재물손해)”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.
- 최근의 국내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성장을 살펴보면, 근재보험, 생산물배상책임보험,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신체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 의료비지출액 증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성장이 예상됨.
- 근재보험의 경우, 종목별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.6%의 성장률을 나타냄.

6) 보험개발원, 『손해보험통계연보』, 2004.

-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비중이 FY2001 26.1%에서 FY2004 29.0%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FY2002 도입 이후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.

<그림 8>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화


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연도.

4. 시사점

국내 배상책임보험은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, 일반 손해보험과의 상이한 특성으로 적합한 요율체계 구축, 적정 준비금 적립, 전문화된 언더라이팅 등을 통한 사전적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.

- 배상책임보험은 국제적으로도 성장 추세에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, 최근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.
-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낮은 보험침투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실정이나, 이는 반대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.

-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및 의료비지출액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“대인배상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고 신체상해 관련 종목의 성장 추세는 배상책임보험시장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.
- 배상책임보험은 향후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예상되는 반면,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클레임 처리의 장기성, 즉 long-tail 종목으로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경영상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적 대비책이 필요함.
- 첫째, 현재 배상책임보험의 많은 종목에서 재보험자 구독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나, 가능한 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요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.
 - 국내 보험환경이 반영된 요율을 사용함으로써, 확대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, 보험회사의 정확한 손익관리도 가능해 질 것임.
- 둘째, 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시점이 아닌 배상책임손해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각종 특성에 맞는 적절한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.
 - 소송환경변화 등에 따라 현재 예기치 못한 대형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준비금 적립 및 위험관리가 필요함.
- 셋째, 법적,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화된 언더라이팅 능력을 배양함으로써, 증가하는 클레임으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.